

새로운 인지주의 감정 이론에 대한 모색

권희진
(서울대학교 철학과)

1. 서론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이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간의 삶을 끝마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령 우리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쁨이나 연민 등의 감정을 느끼고,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그릇된 행위로 인한 죄책감은 행위자로 하여금 도덕적인 반성을 하게 해주어,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감정은 심지어 인간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이슈화되기까지 수많은 목숨들이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적 신경증(neurosis)이나 정신증(psychosis)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우울상태나 불안상태를 경험하면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감정은 이처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감정은 그 자체로서 연구되기보다는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서 왜곡되어 이해되었다. “아마도 감정에 대한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현저하고 결정적인 은유는 주인과 노예에 관한 것인데, 전자는 굳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의 지혜이고, 후자는 안전하게 억눌리고 억압의 상태로 보내지거나 강제되는, 위험한 감정의 충동이다.”¹⁾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감정에 대한 이론이 성립하게

¹⁾ Solomon, Robert C., “Emotions, Philosophy of”, *Routledge Encyclopedia of*

되었는데, 이른바 느낌이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느낌이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데카르트와 흄이 있으며 이들의 견해를 잇는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있다. 느낌이론은 신체적인 감각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견해로서 비인지주의 감정이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임스 이후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감정을 개인의 느껴진 신체적 감각과 동일시하는 견해는 감정을 개인 고유의 것, 즉 사밀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공적인 언어로 소통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이는 감정에 대한 공적인 탐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당시 지성계를 풍미하던 논리실증주의의 사조 속에서 느낌이론은 비과학적 이론의 전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견해가 바로 행동주의인데, 이는 감정을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려 하였다. 심리적인 용어들을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번역하여 심리적인 용어들의 공공성을 획득하려 하였던 행동주의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난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심리적인 용어를 관찰될 수 있는 자극-반응관계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또 다시 심리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난점은 행동주의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다.²⁾ 이러한 비판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감정에 대한 이론이

Philosophy, vol. 3(1998), edited by Craig, Edward, p.286.

- 2) 가령 믿음, 욕구, 행동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작용을 밝히고자 하는 통속 심리학에서 볼 때, 행동주의적 번역은 믿음을 자극-반응의 관계로 정의하기 위해서 ‘욕구’라는 심적인 용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며, 욕구의 경우 ‘믿음’이라는 심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대해 철수가 학교에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타는 경우의 예를 통해 설명해볼 수 있다. 철수는 마을버스가 학교에 간다는 믿음과 학교에 가고자 하는 욕구를 토대로 하여 마을버스에 타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마을버스에 타는 행동을 통해 학교에 가고자하는 욕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마을버스가 학교에 간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학교에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믿음은 그의 행동을 산출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욕구에 대한 행동주의적 번역은 실패할 것이다. 또한 마을버스가 학교에 간다는 철수의 믿음을 마을버스에 타는 철수의 행동을 통해 설명하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철수가 학교에 가고자하는 욕구가 없었다면 철수는 마을버스를 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바로 인지주의이다. 인지주의는 감정이 인지적 요소를 본질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포함한다는 견해로서 감정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지주의는 느낌이론이나 행동주의가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감정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인지적 요소가 없어 보이는 감정이나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고에서 필자는 느낌이론과 행동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들이 갖는 이론적 난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점들이 인지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각각의 인지주의 이론이 모두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음을 밝히고 수정된 인지주의 이론으로서 혼성사고이론을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성사고이론이 인지주의의 난점들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본 논고를 마무리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65. ...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공통적인 어떤 것을 진술하는 대신, 나는 이러한 현상들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두에 대해 같은 낱말을 사용하게 만드는 어떤 일자(一者)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들은 서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근친적(近親的)이라고 말한다...³⁾

이처럼 ‘감정’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어떤 하나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다양한 감정들의 예에서 느낌이론과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주의 각각이 좀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다. 이처럼 욕구가 그의 행동을 산출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욕구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한 행동주의적 번역은 성공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행동은 믿음과 욕구의 결합에 의해 산출되므로 둘 중의 한 요소를 배제한 채 나머지 한 요소를 정의하려는 행동주의의 시도는 달성될 수 없다.

3) 비트겐슈타인, 루트비히 (2006),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p.69.

부분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으로 감정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필자는 본질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본 논고에서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본질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주제와 맞지 않을뿐더러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감정에 대한 하나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으려는 본질주의적 시도가 결국에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감정에 대해 좀더 설득력 있는 이론을 모색하려는 노력마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감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또 하나의 이론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갖는다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에 필자의 논의는 단순히 무가치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2. 감정의 구체적인 예와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의 분석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전형적이라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감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철수는 일과를 마치고 한밤중에 귀가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구석진 곳에서 칼을 든 강도가 자신을 노려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철수는 순간 마음이 철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극도의 공포감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강도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뒤돌아서 큰 길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철수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음직하다. 이처럼 철수가 느낀 공포감은 어떤 기이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 부르는 것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이미 감정에 대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감정에 대해 정의하려 하므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진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가능하다. 이 글의 목적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감정과 감정이 아닌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감정의 의미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공포감이 감정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공포감은 감정의 전형적인 예에 속하기 때문이다. 만일 위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공포감이 감정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감정에 대한 의미마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감정이란 개념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공통적인 기반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공포감을 예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공포감이라는 감정 상태를 토대로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공포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임일환(1996)의 분석은 매우 유용하다. 임일환은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1)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 (2) 특정 종류의 정신적 느낌, (3) 신체적 동요, (4) (3)에 동반하는 신체적 감각(느낌), 그리고 (5) 특정한 행태적 성향이다.⁴⁾ 위에 예시된 감정을 적용하여 설명해보면, 우선 인지적인 요소는 강도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 혹은 믿음이다. 다음으로 특정 종류의 정신적 느낌은 우리가 흔히 공포감에 휩싸였을 때 느끼게 되는 특정한 질적 느낌으로서 위에서는 마음이 철렁거림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적인 동요는 (4)와 구별하여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신체적 변화로서, 가령 손에 땀이 나는 것이라든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3)에 동반하는 신체적 감각이란 손이 축축해짐을 느끼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신체적인 동요에 의해 우리에게 느껴지는 질적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강도를 보고 뒤돌아서 큰 길로 달려가는 철수의 행동은 공포감이라는 감정이 갖는 특정한 회피 성향, 다시 말해 행태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4) 임일환 (1996), “감정과 정서의 이해”, 『감성의 철학』, 민음사, p.29.

물론 모든 감정이 위의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가령 후회와 같은 감정은 행태적 성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심박수의 변화 없이도 충분히 우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리하여 감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위의 항목 중의 무엇을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따라서 감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뉘게 되는데, 느낌적 요소를 감정의 본질로 보는 느낌이론과, 행태적 성향을 본질로 이해하는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적 요소를 본질로 파악하는 인지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이론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느낌이론을 주장하는 제임스의 경우도, 그의 후기 견해는 느낌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넓은 의미의 인지주의에서는 느낌적 요소를 감정의 본질적 측면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논의는 각각의 이론들이 서로 구별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것이지만, 순수한 형태의 느낌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는 결국에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이 또한 밝혀질 것이다.

3. 감정에 대한 느낌이론, 행동주의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이론적 난점

전통적으로 감정을 느낌으로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시도는 느낌이론으로 표현되었다. 느낌이론은 감정에 대해, 이를 경험하는 자에게 느껴지는 특정한 종류의 질적인 감각이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느낌이론의 주창자로서 데카르트, 흄, 그리고 제임스가 있다.

데카르트는 감정을 신체 내부상태의 동요에 대한 지각으로서 파악하였다. 이는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를 구별하는 그의 실체이원론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는 두 실체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감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적 실체인 영혼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데, 영혼의 기능으로서 사고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영혼의 활동과 정념이다. 전자는 욕구라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우리 내부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지각이나 지식이다.⁵⁾ 특히 감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이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은 신경들의 중개에 의해 정신에 이르는데 이는 관계 맺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외부 대상에 관계되는 지각이 있고, 다음으로 우리의 육체, 혹은 그것의 부분에 관계 맺는 것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과 관계되는 지각이 있다.⁶⁾ 여기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정신과 관계되는 지각을 바로 감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각은 정신 자체에만 속해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우리는 이들을 일으키는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며,⁷⁾ 다만 정기에 의해서 기인되고, 유지되고 또 강화될 뿐이다. 다음으로 데카르트는 정신적인 사건이 육체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정신은 뇌의 한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선(腺) 안에 자리를 잡으며, 정신은 동물 정기를 신경들과 피에 중개에 의해, 송과선을 통해 육체로 방사한다. 이 동물 정기는 근육 안으로 들어가 각 부분을 움직인다. 한편 외부대상에 대한 감각은 위와 반대의 과정을 통해 정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기존의 기억들과 비교된다.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같은 방식에 따라서, 데카르트는 감정이 발생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동물이 다가온다면 이는 빛을 통해 우리의 시신경을 자극하고, 시신경의 자극내용은 동물 정기를 통해 정신에 운반되어 동물에 대한 상을 형성한다. 상은 기존의 기억이나 인상들과 비교되어 그 모습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두려움을 일깨우도록 작용한다. 정신은 이때 동물정기를 근육으로 방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 도망갈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피를 묽게 하여 두려움의 감정이 유지되게 한다. 이때 두려움의 감정이란 정신이 동물 정기의 동요를 인식하는 것

5) 데카르트, 르네 (1982), 『방법서설·성찰·정념론·철학의 원리 외』, 김형로 역, 삼성출판사, pp.204-205.

6) Ibid., p.206.

7) Ibid., p.207.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지각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에게 그것의 원인을 인식시켜주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데카르트에게 감정이란 비정상적인 동물 정기의 동요를 내성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을 느낌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킨 철학자로서 흄이 있다. 감정에 대한 흄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흄이 지각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흄은 정신의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나누는데, “인상은 다시 근원적 인상과 2차 인상으로” 나뉜다. 전자는 감각 인상으로, 후자는 반성 인상으로 볼 수 있다. “근원적 인상은 감각의 인상 및 신체적 고통과 쾌락 등”이고, “반성의 인상은 정념 및 이와 유사한 정서 등이다.” 반성 인상은 차분한 것과 격렬한 것으로 나뉘는데 자비심이나 외부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이 차분한 것이고, 격렬한 것은 사랑, 미움, 그리고 비탄 등이다. 또한 흄은 정념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전자는 “선이나 악 그리고 고통이나 쾌락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을, 후자는 “같은 원리에서 유래하지만 다른 요소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적인 정념은 욕구, 혐오, 비탄, 기쁨 등을 가리키며, 간접정념은 긍지, 소심, 야망, 허영심 등을 일컫는다.⁸⁾

이제 각각의 인상들을 비교함으로써 감정이 무엇인지 해명해볼 수 있다. 흄이 감각인상과 반성인상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는 신체적 요소의 포함 유무였다. 그런데 흄은 감정을 신체적 동요와 관련된 것으로서 파악하였고, 따라서 반성인상보다는 감각인상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감정은 신체적 요소를 포함하지만 어떠한 반성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쾌락이나 고통과 유사하고, 때문에 감각인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감정이 육체적인 느낌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⁹⁾

8) 흄, 데이비드 (1996),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2』, 이준호 역, 서광사, pp.25-27.

9) 양선이 (2007), “감정에 관한 비인지주의와 지향성의 문제”, 『한국분석철학회 동계학술대회』, 2007년 2월 22일, p.4.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느낌이론의 옹호자로서 제임스를 들 수 있다. 그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감정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에 대해 생각할 때, 감정을 선행하여 느끼기 때문에 이후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가령 공포의 감정을 느낀 후에 손에 땀이 나거나 머리카락이 솟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와 같은 상식적인 견해와는 반대에 입장에서 감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다음의 설명은 감정에 대한 제임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거친 정서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사실을 정신적으로 지각하면 정서라 불리는 정신적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신체 표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론은 이와 반대로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사실을 지각하면 곧바로 신체 변화가 따르고 그 신체 변화에 대한 느낌이 정서라는 것이다.¹⁰⁾

그는 위의 견해에 대해 예시를 덧붙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울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때렸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며, 몸을 떨었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감정에서 신체적인 느낌을 전부 제거해버리면 그 감정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어 더 이상 감정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신체적인 느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느낌을 본질적 요소로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느낌이론이라 불리는 이 같은 견해는 전통적으로 강하게 주장된 것이지만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느낌이론은 현상적 개별화(phenomenal individuation)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 현상적 개별화란, 감정을 공포나 우울, 후회 등 개별적인 감정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다시 말해 감정주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개별적인 감정으로 적

10) 제임스, 윌리엄 (2005), 『심리학의 원리3』, 정양은 역, 아카넷, p.2040.

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부분 감정을 촉발시키는 대상에 의존하는데, 가령 우리는 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지나간 과오에 대해 후회한다. 그런데 느낌이론은 감정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제외한 채 감정을 느낌과 동일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데카르트의 경우, 감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어떠한 원인도 인식시켜주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신체적 느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흄이나 제임스에게도 이와 같은 설명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신체적 느낌이 어떠한 인지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만을 감정주체에게 고지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 감정주체는 자신의 신체적 동요상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적절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감정주체가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이 공포의 감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숨이 막혀서인지 구별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의 범위 안에서 살펴보더라도 수치심과 당황은 내적으로 비슷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느낌이론의 틀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심지어 내성적으로 고지해오는 단순한 느낌이 언제나 오류불가능한 것인지조차 의심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간지러움과 가려움을 구별하는 데 종종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느낌조차도 의심을 받는다면 신체적 느낌만으로 감정을 적절하게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느낌이론의 또 다른 문제는 감정의 지향성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정의 지향성은, 감정이 대상을 향하여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포라는 감정은 다가오는 강도에 대해, 혹은 곧 내 몸을 파고들 주사바늘에 대해 일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대한 후회라든지, 상실에 대한 슬픔 등 거의 모든 일상적인 감정은 대상을 향하여 있다. 그러나 느낌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 대상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가령 내가 화를 느낀다고 해서 친구의 배신이 알려지거나, 불안이란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앞으로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감정의 발생적인 측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외부, 혹은 내부의 대상에 의

해 촉발된다. 먼저 감정을 촉발시키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후에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감정주체는 대상과 감정을 서로 연결하게 된다. 그러나 느낌이론은 오히려 감정을 통한 외부세계의 추론에 대해 논의하면서 감정이 외부세계에 대해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감정의 발생과정을 역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감정주체는 느낌이론의 주장처럼 감정을 통해 외부세계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세계를 감정과 결부시킨다. 그리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이 감정의 부분을 이루게 된다. 또한 심지어 감정을 통한 추론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도 있다. 가령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토대로 가스불 잠그는 것을 깜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감정에 대한 느낌이론은 감정의 지향성을 부정하거나 적절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편 감정에 대한 이론은 감정주체가 느끼는 감정이 적절한가의 여부, 다시 말해 감정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남성우월주의자가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법안 통과를 지켜보면서 큰 기쁨을 만끽할 때, 그의 도덕적 판단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의 기쁨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감정이다. 이처럼 감정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감정을 촉발하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느낌이론은 감정의 규범적 평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다. 감정 주체의 내적인 신체적 느낌은 어떠한 인지적 요소도 포함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연관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때조차도, 그의 희열이 만약 그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당한 감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희열이란 단어의 의미적 측면에서나 혹은 우리의 직관의 측면에서나 명백하게 부당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느낌이론은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단어의 간주관적인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불

수 있는데, 간주관적인 의미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하기 위해 공적으로 소통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다른 이는 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사태를 ‘상자 속의 딱정벌레’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만약 개인마다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상자를 받고 자신만이 자신의 상자 안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이가 딱정벌레가 들어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자. 물론 상자 밖의 어디에도 딱정벌레는 없어야 한다. 이러할 때, 각자는 다른 이가 ‘딱정벌레’라는 단어를 통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돌에 대해, 다른 이는 나비에 대해 딱정벌레라고 불렀을 수 있으며 심지어 상자 안에 아무 것도 없을 때에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¹⁾

위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어가 간주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느낌이론에서 주장하는 감정은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불안, 우울, 공포가 해당될 것이다. 만약 이 감정들을 감정주체 각각이 ‘후회’(이는 ‘딱정벌레’에 대응한다)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했다면 서로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느낌이론의 주장대로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낱 내성적 감각만을 지시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가 감정에 대한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사밀한 내면의 감정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느낌이론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을 지시하는 단어는 간주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감정상태는 전혀 의사소통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김재권 (1997), 『심리철학』, 하종호·김선희 역, 철학과 현실사, pp.54-55.

이와 같은 느낌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감정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설명을 추구한 이론이 바로 행동주의이다. 행동주의의 등장은 당시의 지적 풍조인 논리실증주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논리실증주의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를 유의미한 명제로 보면서 학문탐구에서 관찰이나 경험을 중시하였다. 행동주의도 이 같은 이념에 따라서 심적 용어를 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행동과 물리적 현상으로 기술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주관 내부의 상태에 대한 진술은 무의미하며, 올바른 심적 진술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극과 반응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의 개창자인 왓슨의 이론은 이 같은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기계이며, 인간의 모든 기능은 자극과 반응에 의하여 관찰되거나 기술될 수 있다. 왓슨은 실험을 통해, 인간은 세 가지의 반응을 선천적으로 타고 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랑, 공포, 그리고 분노이다.¹²⁾ 어른의 복잡한 감정은 이들 세 가지의 행동 반응으로부터 증가되거나 변형되며, 이는 유아의 삶보다 어른의 삶에서 더 많은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왓슨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함으로써 심리학을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이후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행동주의에 대한 중요한 비판 중의 하나는, 성인의 행동이 단순히 유아의 행동유형의 복잡이나 변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체통에서 협박편지를 꺼내 받아든 사람과 연애편지를 받아든 사람 간의 행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협박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회피행동을 하거나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처럼 연애편지를 받아 든 사람 역시 사랑으로 정의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아들이 보이는 행동유형인 공포나 분노, 혹은 사랑을 통해 성인의 공포, 분노,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성인의 행동이 유아의 단순한 행동과는 질

¹²⁾ Birmbaum, Lucille C., "Behaviorism in the 1920's", *American Quarterly*, vol. 7(1955), pp.15-17.

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으로 보인다.

또한 행동주의는 같은 자극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해내기 어렵다. 이는 감정에 대한 고유한 행동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령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하여 도망을 치는 것이 고유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인의 감정에 있어서 고유행동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어떤 이는 뱀을 보고 뒤돌아서 도망치려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릴지도 모른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행동반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공포스러운 자극에 대한 고유한 행동이 무엇인지, 즉 공포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유한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행동주의자들이 같은 자극에 대하여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서로 다른 감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하다면 우리가 흔히 뱀에 대한 공포라고 부르는 하나의 감정이 행동주의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될 것이다. 뱀에 대한 공포만 하더라도 행동에 따라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인데, 이보다 더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의 감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휘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유행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고유의 특정한 행동이 왜 특정한 감정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의 주장대로 만약 각각의 감정에 대해 상응하는 각각의 고유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행동이 공포나, 후회, 불안 등이 되는 이유를 행동주의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행동주의는 각각의 감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근거로 각각의 감정에 대해 정의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산 속에서 뱀을 만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이는 온 몸을 떨며 허겁지겁 도망가려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이는, 만약 그가 땅꾼이라면 안면을 화기를 띠고 뱀을 잡으려 할 것이다. 행동주의자는 이에 대해 전자는 공포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고 후자는 기쁨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도망가는 것은 공포가 되고 다가가는 것은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공포가 그런 것이고 기쁨이 그런 것이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행동주의의 목표가 내성적인 감각을 통한 감정의 정의를 거부하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극과 반응을 통해 감정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감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감정을 자극과 반응으로 정의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자극, 혹은 반응이 결여된 감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외적 자극이 결여된 감정으로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후회의 경우, 자극은 이미 지나가버린 사실이 될 것인데 이는 현재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찰될 수 없는 자극으로 인해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또한 제 3차 대전의 발발과 같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불안 역시 외적인 자극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외적인 자극이 없기 때문에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의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행동주의자들은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외적인 자극을 결여한 감정이 아니며 과거에 있었던 자극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령 후회의 경우 행동주의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배열하여 현재의 후회라는 감정상태를 설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버린 외적 자극이 현재의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기억이라는 심적 상태를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 만약 기억이 없다면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 지나가버려 현재에서 어떠한 자극의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동주의자들은 현재 공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외적 자극을 기억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해 설명하려고 할 것인데, 이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기억과 같은 심적 상태는 특정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3년 전 여름은 매우 더웠다’라는 기억이 현재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침내 행동주의자들은 기억에 대한 행동주의적 설명을 위해 언어적 행위를 행동으로 간주하려 할 것이다. 가령 “당신은 P를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P를 기억한다”라고 대답할 경우와 같은 언어적 행위를 통해 기억을 행동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이 경우 질문을 받는 사람은

한국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하며, 진실을 말할 욕구를 가져야 하고, 이 외에도 의미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하는 등 고도의 심적인 상태를 언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심적인 상태에 대한 행동주의적 설명의 시도는 설명할 대상을 지속적으로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결국에 현재 외적인 자극이 결여된 감정에 대한 행동주의적 설명은 성공할 수 없다.

또한 반응이 결여된 감정의 경우도 행동주의적 설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행동주의자에 따르면 공포영화를 보면서 영화관을 뛰쳐나가지 않는 관객들은 공포를 느낀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관객을 뛰쳐나가게 하지 못하는 공포영화는 관객에게 공포를 줄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공포영화를 보면서 뛰쳐나가는 관객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결국에 행동주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포영화는 공포를 전혀 주지 못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게 된다. 또한 비록 도망치는 행동이 결여되어도 공포영화를 보면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하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행동주의의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4.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이론

느낌이론이나 행동주의의 이론적 난점을 극복하면서 감정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추구한 이론이 영미철학계에서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바로 인지주의 이론이다. 분석철학의 전통 속에서 발전한 인지주의는 감정에 있어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감정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느낌이론이나 행동주의와는 차별을 보이게 되는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공포의 감정에 대해 느낌이론은 내적인 동요의 자각이나 심장이 두근대는 느낌 등의 신체적 감각을 통해 정의하였고, 행동주의는 공포스러운 자극에 대한 도피행동으로서 공포를 정의하였다. 반면에 인지주

의는 공포를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통해 설명한다.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가 감정을 정의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지주의의 기본적인 논제는 사고나 인지적 요소가 감정을 본질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주관의 믿음이나 판단 등이며, 따라서 인지주의에서 감정의 대상은 감정을 설명하는 데에 본질적인 요소이다. 다시 말해, 감정이 대상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는 주관 내부의 느낌으로 감정을 정의하고 외부적 대상의 중요성을 도외시했던 느낌이론이나 주관 내부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여 대상과 주관 사이의 관계를 외면했던 행동주의와는 차별화된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대상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려는 인지주의의 입장은 과거 느낌이론이나 행동주의가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우선 인지주의는 감정의 현상적 개별화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현상적 개별화란 주체가 겪고 있는 감정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느낌이론에서 중요한 난점 중의 하나였던 이 문제는, 느낌이론이 감정과 감정의 대상을 관련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수치심과 당황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서 느낌이론은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인지주의 이론은 감정을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가령 수치심의 경우 남들에게 보여진 나의 결점이 있다는 믿음에서 발생할 수 있고, 당황의 경우 상황의 흐름과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것이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인지주의는 감정과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장점을 가진다.

인지주의의 중요한 장점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감정의 지향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준다는 것이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한 감정으로 여겨진다. 가령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은 뱀에 대한 것이거나 폭발물에 대한 것일 것이다. 이처럼 감정은 그것의 대상을 향해 있는데 이를 감정의 지향성이라 한다. 느낌이론은 고립된 주관의

느낌을 통해 감정을 설명하려 하였기 때문에 감정의 지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지주의가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인지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감정을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주의는 감정의 규범적 평가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 역시 감정을 대상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주의의 장점에 기인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예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회열을 느끼는 사람을 들어 설명해볼 수 있다. 느낌이론에서는 그의 회열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반면 인지주의에서 그의 회열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평가된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라는 그의 믿음과 회열이라는 그의 감정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부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지주의는 감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만약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심각한 슬픔에 잠겨 울고 있다고 한다면, 행동주의자들은 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설명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지주의에 따르면, 그의 감정 상태를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수배되어 있는 그가 복권당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체포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의 감정은 적절한 것이 된다. 행동주의자들은 그가 처해있는 상황을 자극 조건에 포함시켜 그의 슬픔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자극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언제나 행동의 파기 가능성이 생긴다. 만약 그가 비록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복권 당첨금 회수를 대행해주는 단체가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자극으로 포함된다면, 그는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사악한 미소를 띠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합리적 설명은 인지주의의 고유한 장점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지주의는 감정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가 심적인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심적 현상의 주체로서의 타인이 처한 상황과 행동, 그리고 그의 언어적 보고에 의존한다. 가령 해

수욕 중에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해안으로 달려나온 사람이 나는 정말 공포를 느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공포라고 말하는 심적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상황(상어의 출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가 달려나온 사실로부터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느낌이론에서 감정의 의사소통 가능성이 배제된 주요한 원인은 감정이 그것을 촉발하는 관찰 가능한 대상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적 사태에 대한 보고는 결국에 ‘상자 속의 딱정벌레’의 비유에서처럼 아무런 간주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반면에 인지주의의 경우 감정을 관찰 가능한 대상(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므로 감정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지주의는 느낌이론이나 행동주의가 감정을 설명하면서 처했던 난점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감정에 대해 좀더 우리의 직관에 가까운 설명을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편 인지주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되었는데, 필자는 주로 임일환(1996)과 김세화(2003)의 구분법을 통하여 참다운 인지주의의 형태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임일환과 김세화가 행하고 있는 인지주의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임일환은 인지주의 감정이론을 순수 인지주의와 절충식 인지주의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순수 인지주의 이론은 “인지적 요소 자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¹³⁾으로서 감정과 인지적 요소를 동일시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지적 요소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정서 자체는 이 필요 조건에 비인지적 요소를 부가한 어떤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¹⁴⁾는 입장을 절충식 인지주의라 할 수 있다.

김세화는 임일환보다 좀더 세분화된 구별을 하고 있다. 우선 믿음이나 판단을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간주하고, 느낌과 같은 요소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순수 인지주의 이론이 있다. 다음으로 믿

13) 임일환 (1996), “감정과 정서의 이해”, 『감성의 철학』, 민음사, p.43.

14) Ibid.

음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느낌 혹은 심리생리적 동요도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혼성 인지주의가 있다. 양자 모두 믿음이나 판단이 감정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 외에도 믿음이나 판단이 감정과 인과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도 넓은 의미에서 인지주의라 불릴 수 있다. 여기에는 순수인지주의와 혼성인지주의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인과적인 측면에서 감정은 믿음을 원인으로 갖지만 믿음 자체가 감정의 구성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넓은 인지주의의 변형도 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나 판단을 감정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 강한 주장이며, 명제에 대한 생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를 사고이론이라 한다.¹⁵⁾ 이 외에도 김한승(2003)은 인지주의를 강한 인지주의와 약한 인지주의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논지의 전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¹⁶⁾

임일환과 김세화의 구분법은 인지주의에 대한 정당한 분류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양자의 체계 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인지주의의 형태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그들의 인지주의 구분법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구분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인지적 요소를 믿음 혹은 판단으로 여기는 인지주의와, 이를 사고로 여기는 인지주의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은 또한 신체적 느낌을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믿음 혹은 판단을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신체적 느낌을 부차적인 것으로 배제하는 인지주의가

15) 김세화 (2003), “퍼즐은 없다 -김한승 박사의 “감정에 관한 또 하나의 퍼즐”에 대한 반론-”, 『철학적 분석』제 7권, p.86.

16) 김한승(2003)은 강한 인지주의와 약한 인지주의에 대해서 구별한다. 강한 인지주의는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형태의 믿음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약한 인지주의는 감정이 어떠한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 또는 갖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존한다”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포함한 믿음을 감정의 구성요소로서 보는 견해이다.(김한승 (2003), “감정에 관한 또 하나의 퍼즐”, 『미학』제 34권, pp.123-125.)

있는데 이를 순수인지주의라고 한다. 다음으로 믿음 혹은 판단과 함께 신체적 느낌 역시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인지주의를 혼성인지주의라 부를 수 있다. 인지적 요소로서 믿음 혹은 판단은 너무 강하며 사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주의가 있는데 이 역시 신체적 느낌을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감정을 정의하는 데 있어 신체적 느낌을 배제하는 입장을 사고이론이라 부를 수 있고, 신체적 느낌을 인정하는 견해를 혼성사고이론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신체적 느낌 인지적 요소	믿음 혹은 판단	사고
신체적 느낌 인정하 지 않음	순수인지주의	사고이론
신체적 느낌을 인정	혼성인지주의	혼성사고이론 (필자의 명명)

이와 같은 구분은 임일환과 김세화의 구분을 통해 나타났던 인지주의 형태들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양자의 구분법에서 제외되었던 인지주의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 가령 임일환이 인지주의를 구별하면서 언급한 절충식 인지주의는 혼성인지주의와 혼성사고이론을 통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혼성사고이론은 임일환과 김세화의 구분법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지만, 필자의 구분법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지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인지주의를 각각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점들이 위에서 필자가 명명한 혼성사고이론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 후 본 논고를 마무리할 것이다.

우선 순수인지주의는 감정을 믿음 혹은 판단과 동일시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느낌은 부차적인 것으로서 감정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가령 뱀에 대한 공포는 ‘나를 해칠 수

있는 동물이 있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인지주의의 형태는 기존의 느낌이론과 행동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온 것으로서, 앞서 보았던 인지주의의 장점을 보전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감정을 믿음이나 판단과 동일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감정과 동일시될 수 있는 많은 믿음들이 모두 감정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어 어린 시절 자신을 배신했던 친구를 생각하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노인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노인은 분명 자신을 화나게 하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이 사실이 더 이상 자신을 분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믿음만으로 감정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굳이 감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무미건조한 믿음이나 판단을 감정으로 여기게 만드는데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감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순수인지주의에 대한 가장 큰 난점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의 문제라 볼 수 있다. 순수인지주의자들은 믿음이나 판단만을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즉 나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이 내 앞에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가령 그 동물이 알고 보니 인형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동물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다는 존재믿음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을 때,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소위 레드포드 퍼즐이라 하는 문제에 맞닥뜨린다. 레드포드는 인지주의가 허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을 설명할 때에 역설에 빠짐을 다음의 세 전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1) 우리는 오직 우리 감정의 대상이 실재라고, 즉 존재한다고 믿을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
- (2)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즉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허구의 인물

이나 상황이 실제라고, 즉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3) 우리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¹⁷⁾

순수 인지주의자들이라면 전제 (1)을 받아들일 것이고, 또한 전제 (2)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역설을 피하기 위해 전제 (3)을 부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픽션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진정한 감정으로 성립할 수 없다. 실제로 순수 인지주의자들은 전제 (3)을 부정하여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은 quasi-emotion이며, 이는 실제의 대상에 대한 감정과 구분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진정한 감정이 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견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인지주의의 또다른 형태로서 혼성인지주의가 있다. 혼성인지주의는 믿음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신체적 느낌 역시 감정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아야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신체적 느낌을 도입함으로써 순수인지주의가 처했던 한계인, 무미건조한 믿음을 감정으로 여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혼성인지주의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 친구의 배신에 대한 노인의 믿음은 어떠한 신체적 느낌도 일으키지 않음으로 감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임일환(1996)은 인지주의에서 신체적 느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느낌이 없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이에 대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졸속 행정에 분개할 때 통상 우리는 특정 분노의 감정이나 느낌 없이 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정부의 졸속 행정에 대해 옳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것일 뿐이다. 분노의 감정

17) 김세화(2002), “허구에 대한 감정과 래드포드 퍼즐”, 『철학연구』 제57권, p.306.

18) 이와 같은 접근은 윌튼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다. 이는 *Mimesis as Make-Believe*에 잘 나타나 있다. (Kendall Walton, *Mimesis as Make-Believ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0.)

19) 임일환(1996), “감정과 정서의 이해”, 『감성의 철학』, 민음사, p.51.

이 없는 분개란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느낌이 없이 분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분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단지 느낌 없는 냉정한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두 번째 비판은 인지주의에서 도입하는 느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인지주의에서 느낌을 도입할 때 필요한 느낌의 종류는 내적으로 감각되는 고유의 질적인 느낌(초반에 감정의 구성요소를 논의하면서 구분했던 항목들 중 (2)에 해당)이어야 한다. 인지주의에서 느낌적 요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미건조한 믿음이 감정으로서 여겨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이 같은 사정에서 신체적 동요(혈압이 올라감)나 이에 상응하는 신체적 감각(머리가 솟음을 느낌)을 도입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다. 가령 100m 달리기를 마친 직후에 혈압이 상승하고 온 몸이 땀으로 젖었다는 것을 느끼더라도 내일 있을 시험을 생각할 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혈압이 증가하지 않고, 전혀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주체가 판단하기에 불안하다고 여겨질만한 내적인 느낌이 있다면 그는 불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주의에 느낌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왜 행태적 성향(공포에 대한 행태적 성향은 도피이다)은 포함되지 않는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순수 인지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굳이 행태적 성향까지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실제로 후회나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행태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통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인지주의가 느낌을 도입하면서 느낌이론이 처했던 한계를 답습하게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혼성 인지주의이론에서는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또한 본질적으로 감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지향성과 같은 느낌이론의 한계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혼성 인지주의의 문제점은 느낌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인지적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때문에 혼성 인지주의도 순수 인지주의가 맞닥뜨렸던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을 지닌다.

앞서 구별한 인지주의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사고이론이 있다. 이는 감정에 대한 인지적 요소를 믿음이나 판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강한 주장이며, 이를 사고로 대체하더라도 인지주의의 장점이 모두 보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세화(2005)는 래드포즈 퍼즐에 대해 논한 그의 논문에서 사고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가 다른 이론들, 특히 감정을 느낌이나 감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들에 비해 갖는 장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들은, 감정의 본질적 부분이 믿음이 아니라 단지 생각이기만 해도 모두 다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다. …… 감정의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믿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감정과 믿음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믿음보다 약한 생각만으로도 위의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다.²⁰⁾

사실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믿음이 아니라 사고이더라도 감정의 현상적 개별화의 문제나 지향성의 문제, 규범적 평가의 문제나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사고가 믿음이나 판단이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인지주의 안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전망대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경우 그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전망대가 위험하다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가 떨어져 죽을 경우를 상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있다고 믿지 않는, 미래나 과거의 대상들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 얼마든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인지적 요소를 사고로 규정하는 사고이론이 믿음으로 여기는 여타 인지주의보다 더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 김세화(2005),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그에 대한 수정”, 『철학』 제84권, p.169.

한편 인지적 요소의 범위를 사고까지 확장한 사고이론은 래드포드 퍼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는 전제 (1), 즉 우리는 오직 우리 감정의 대상이 실재라고, 즉 존재한다고 믿을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감정을 느낀다는 명제를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고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이 존재한다고 믿을 경우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상상할 경우에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허구의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얼마든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진정한 감정이 아닌 것으로 보는 순수인지주의의 결론과는 달리 우리의 직관에 합당한 것으로서 래드포드 퍼즐에 대한 정당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이론은 이처럼 순수인지주의의 난점을 해결하여주지만 느낌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또다시 순수인지주의가 설명할 수 없었던, 무미건조한 믿음(사고)을 감정으로 여기는 문제에 봉착한다. 김세화(2005)는 느낌적 요소를 거부하는 근거로 “나는 저 사람에게 지난 1년 내내 화가 나 있어”라고 말할 때, 그가 심리적-생리적 반응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²¹⁾ 즉, 사고는 있지만 심리적-생리적 반응이 없는 경우도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옳바르지 않다. 김세화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사람에게 1년 내내 화가 나있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1년 내내 좋아할 수 있고, 1년 내내 사자에 대해 공포를 경험하고, 1년 내내 제 3차 대전에 대한 불안에 떨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수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사고를 감정과 동일시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한꺼번에 수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가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희열이나 불안과 같은 하나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세화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공포, 불안, 후회 등의 수많은 감정들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별 다른 감정

21) Ibid., p.170.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직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심지어 여러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모순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어떠한 대상으로 인한 희열을 느끼면서 다른 대상으로 인한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김세화에 따른다면 우리는 동시에 희열과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감정현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느낌적 요소를 거부하고 인지적 요소로만 감정을 설명하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필자는 각각의 인지주의들이 맞닥뜨리는 난점을 해결하면서도 장점은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지주의, 즉 혼성 사고이론을 주장한다. 이는 믿음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사고도 인지적 요소로서 인정하며, 또한 느낌적 요소 역시 감정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파악한다. 혼성 사고이론은 사고를 인지적 요소에 포함함으로써, 믿음만을 인지적 요소로서 파악할 때 발생하는 래드포드 퍼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느낌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무미건조한 믿음이나 판단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는 인지주의의 틀 안에서, 느낌이론이나 행동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도, 인지주의의 여러 형태들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인지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혼성 사고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감정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찾고자 한 개념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인지적 요소와 느낌적 요소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통해 뒷받침되고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 밝힌,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과 같이 근원적인 문제 외에도 인지주의가 풀어야 할 인지적 요소가 없

어 보이는 감정의 문제에 대해 본 논고에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해하거나 불안해진다. 이 같은 문제는 인지주의가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수학 문제의 비유를 통해 해결의 맥락을 제시하면서 본 논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수학문제를 접하였을 때, 적어도 그것이 풀 수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인지적 요소가 없어 보이는 감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지적 요소가 없어 보인다고 그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인지적 요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이 같은 감정을 통해 인지주의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먼저 인지적 요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세화 (2002), “허구에 대한 감정과 래드포드 퍼즐”, 『철학연구』 제 57권, pp.305-319.
- _____ (2003), “퍼즐은 없다 -김한승 박사의 “감정에 관한 또 하나의 퍼즐”에 대한 반론-”, 『철학적 분석』 제7권, pp.83-93.
- _____ (2005),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그에 대한 수정”, 『철학』 제84권, pp.157-172.
- 김재권 (1997), 『심리철학』, 하종호·김선희 역, 철학과 현실사.
- 김한승 (2003), “감정에 관한 또 하나의 퍼즐”, 『미학』 제34권, pp.115-144.
- _____ (2003), “자기 기만적 감정”, 『철학적 분석』 제8권, pp.147-162.
- 김혜련 (2003), “픽션의 역설과 인지주의 감성론”, 『미학』 제35권, pp.109-150.
- 데카르트, 르네 (1982), 『방법서설·성찰·정념론·철학의 원리 외』, 김형로 역, 삼성출판사.
- 비트겐슈타인, 루트비히 (2006),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책세상.
- 양선이 (2007), “감정에 관한 비인지주의와 지향성의 문제”, 『한국분석철학회 동계학술대회』, 2007년 2월 22일.
- 이병덕 (2006), “허구의 대상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철학적 분석』 제14권, pp.117-140.
- 임일환 (1996), “감정과 정서의 이해”, 『감성의 철학』, 민음사, pp.21-68.
- 장동의 (2004), 『철학사상』 별책 제 3권 제 15호 : 『흠』인성론』, 도서출판 관악.
- 제임스, 윌리엄 (2005), 『심리학의 원리3』, 정양은 역, 아카넷.
- 조선우 (2006), “허구에 대한 감정반응 설명모델로서의 시뮬레이션 이론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 차재호 (1986), “행동주의 심리학”, 『대의심포지움』 1986년호,

pp.67-91.

플러칙, 로버트 (2004), 『정서심리학』, 박권생 역, 학지사.

황우영 (1999), “허구에 대한 정서 반응 고찰 : K. L. 윌튼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흠, 데이비드 (1996),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2』, 이준호 역, 서광사.

Birbaum, Lucille C., “Behaviorism in the 1920's”, *American Quarterly*, vol. 7(1955), pp.15-30.

Kenny, Anthony, *Action, Emotion, and Will*, 2nd ed.(2003), Routledge.

Solomon, Robert C., “Emotions, Philosophy of”,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3(1998), edited by Craig, Edward, pp.285-290.

_____, *What Is an Emotion? :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2nd ed.(2003), edited by Solomon, Robert C., Oxford University Press.

Watson, John B.,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 *Psychological Review*, vol.101(1994), pp.248-253.